

환경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녹색의 전화」가
 개설됐다.
 朴英淑 平民政黨 부총재가 대
 화 환경문제 상담실은 汝
 矣島 여성백인회관에서 사무
 실을 마련하고 지난 28일부
 터 환경문제에 관한 전화상
 담을 받고 있다. 그동안 민
 간 환경운동단체 등에서 부
 분적으로 공해피해 등에 대
 해 상담을 벌이고 환경제
 어서도 공해피해 사례들을
 접수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전문상담전화는 개설된 것
 은 처음이다.

녹색의 전화는 양로로
 공해피해와 환경문제에 대
 한 전화를 받고 상담이나
 회담을 받고 상담이나
 회담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자원봉사자

토구선인 5명의 상담원
 이 상담내용을 전수하
 전담변의 가한 것은
 즉시 회담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여 현상화인이
 필요하면 상담위원이 현
 지를 방문해 조사할 계
 획이다.

또 시간간 상담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면
 접 상담을 하여 현상화인이
 필요하면 상담위원이 현
 지를 방문해 조사할 계
 획이다.

녹색의 전화는 이를 위
 해 변호사와 환경전문가 등
 과 연계, 상담내용에 대한 법
 른지식제공 무료변론과 전
 문지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전담공해피
 해를 입었을 경우 민간환
 경운동단체와 연결해 해결
 책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관
 계행정기관에 대한 통보와
 협조요청도 대할 방침이
 다. 이밖에 기업활동을 하
 려는 사람에게 환경오염방
 지시설등의 정보와 법률지
 식도 제공하게 된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금
 요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5
 시까지. 전화번호 784-2003
 354

◇朴英淑 부총재

공해피해·환경문제 전문상담
「녹색의 전화」 개설
 平民 朴英淑 부총재 대표말마

90.8.31. 한겨레



시사저널 나팔

환경문제 해결 '상담실' 열어

朴英淑 평민당부총재가 환경오염 문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을 개설했다 (전화 784-2003~4).

녹색의 전화 상담실은 8월28일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2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상담업무를 개시.

"아마도 정당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70년대부터 관심을 가졌던 생명운동·환경보호운동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국회 보사위에서 일을 하면서 정부당국조차 환경에 대

한 인식이 없다는 데 충격을 받았습

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후 더 바빠졌다는 박부총재는 어차피 사무실은 구해야 할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상담 프로그램을 밀고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녹색의 전화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그나마 혜택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 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등 다각적인 상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90.9.6. 시사저널.